

# 2019 국제예술공동기금 한-덴마크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 심의총평

- 사업유형 : 2019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덴마크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
- 심의분과 : 문학, 시각예술분과
- 회의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10:00~13: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곽효환, 김노암, 양지연, 안소연, 정홍수

2019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덴마크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 문학, 시각예술 분과 지원심의는 총 14건, 989,466,000원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지원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숙지하고, 심의 당일 전체 토론과 개별 채점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분야별로는 문학 1건, 시각예술 2건이다. 지원 총액은 229,000,000원이다.

심의위원들은 사업내용의 예술성을 최우선한다는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본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수하였다. <한-덴마크 문화예술교류 프로젝트>는 예술 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의 일환으로 '19년도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공동협업·초청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예술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교류의 효과(국제적 파급력)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올해 지원한 사업들은 대체로 매우 의미 있고 충실한 기획들이 많았다. 당대 한국 문화 예술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양국의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교류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시각예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학 분야의 지원자가 적어 아쉬움이 컸다.

무엇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길 기대하며 예산을 배정하였다. 제한된 예산에서 적은 수라도 한국과 덴마크의 현실을 고려하여 선정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을 목표로 했다. 그러다보니 비교적 우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가 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향후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이 그 지향점과 중요성에 걸맞은 우수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국가간 문화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이며 현실적인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문학·시각예술 분과 심의위원 일동